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포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딤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2000 홍해작전 6월 6일(화) 진군 시작

산상보훈 통해 천국시민의 삶 실현

2000 홍해작전이 6월 6일(화)부터 천국 시민의 삶을 배우게 될 예정이다. 시작된다.

말씀과 기도의 작전으로도 불리는 홍해작전의 특별 새벽기도회는 25일(주일)까지 20일 동안 새벽 5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게 된다.

새벽기도회에서는 먼저 홍해작전 본부에서 제시한 일곱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온 성도가 합심 기도를 드린 후 이종윤 목사의 설교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천국 시민의 삶을 배우게 될 예정이다.

홍해작전 조직 구성

올해 홍해작전 조직이 구성됐다. 사령관 이종윤 목사는 참모장 정병무 장로를 비롯 각 부서 참모를 다음과 같이 임명했다.

- ▲기획참모 박두호 ▲행정참모 이번생 ▲예배참모 민순규 ▲찬양참모 임훈규 ▲동원참모 노송성 ▲홍보참모 이완형 ▲봉사참모 윤찬오

한가족 한마음 축제 에 붙어

아름답고 감격스런 축제 만들터

박철훈 (장로, 진행위원장)

우여곡절 끝에 축제 장소가 가장 가까운 곳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북한의 평양극예단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오래 전에 허락했던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아픔을 겪었고 그 바람에 더 좋고 교통 편한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홍해작전 첫 날이 오면 서울교회 전가족은 한 가족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한남동에 위치한 단국대학교로 모여야 합니다. 그것도 갈라진 마음들이 아닌 한마음된 가족으로 모이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여서 “나의 사랑 서울교회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를 외쳐야 하겠습니까.

오래간만에 한자리에 모두 모이게 되고 눈과 눈을 마주하며 사랑과 화해와 하나됨을 확인합니다. 먼 곳에 있던 성도와 가까운 곳에 있던 성도가 손과 손을 잡게 되고 다시는 모른다고 변명하지 못하게 하는 장이 됩니다.

각 다락방마다 가장 좋은 음식과 맛있는 솜씨를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넓은 운동장을 마음껏 뛰놀면서 살아있는 기쁨을 노래하고 춤추게 될 것이고 연로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예배당 시대를 코앞에 두고 펼쳐지는 한마음 축제에서 기대와 설렘이 한층 고조될 것이고 그 여세를 몰아 성전 건축의 속도도 가속화 될 것입니다.

많은 후원자들의 도움을 입어 다양한 상품과 선물을 쌓아 놓고 행사를 치르게 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좋고 감격스러운 축제에 나는 싫어 나는 싫어 하면서 제 길로 가려는 양떼가 더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후회와 아쉬움이 평생을 따라다닐 것인데 그 사실을 모른체 참가하는 것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앞장 서 계시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과 교사와 찬양대원들은 솔선수범하여 모든 성도가 참여하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6월 6일 단국대학교 체육관에서 꼭 만납시다.

2000 홍해작전 개요

- 주 제: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 포 어: “나의 사랑 서울교회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2:10)
- 기 간: 2000년 6월 6일(화) ~ 6월 25일(주일), 20일 간 새벽 5 ~ 6시
- 행동강령: 1. 하나님의 전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 새벽기도회 강사: 이종윤 목사

한가족 한마음 축제 단국대학교 체육관으로 장소 변경

전교인 체육대회인 “한가족 한마음 축제”(진행위원장 박철훈 장로)가 6월 6일(화) 단국대학교(한남동 소재)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 오전에는 난파음악기념관(음악당)에서 찬양 축제와 개회 예배를 드린다.

12시부터 체육관으로 자리를 옮겨 각 가정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다락방 식구들과 모여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게 된다. 오후에는 선수 입장으로 시작하여 각종 경기를 벌이게 된다.

모든 경기를 마치면 주변 청소와 정

리 정돈을 한 후 폐회예배를 끝으로 오후 6시에 모든 순서를 마치게 된다.

한가족 한마음 축제 본부에서는 개최 장소가 단국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된 데 대해 성도들이 혼란이 없기를 바라면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당일 성도들이 이용할 대중교통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가족 한마음 축제는 1993년 중앙대학교 운동장에서, 1994년 잠실보조경기장에서, 1997년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바 있다.

제자의 도 ④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창세기 12장 1 - 9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 오 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저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벨셀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벨셀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이중운 목사

아브라함은 위대한 신앙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 다윗, 모세 등 신앙의 장부들도 한결같이 고백하기를 자신들의 믿음이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1.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4절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오늘날에 와서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수단이 되는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창 15:6).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마 1:1, 눅 1:73).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응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결코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쩌면 그 자신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에 잉태되기 전,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택하셨습니다(신 7:7-8).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입니다(사 51:2).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신앙보다 앞서 있는 것입니다(요 6:65).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다음에는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아멘으로 대답하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2.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아무 믿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각각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는 하란에서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시 그를 불러 가나안까지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약점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대로 행해

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따지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없이 믿는 것이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증거를 주셨고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친구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방법으로 오늘날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할 때에 두 번째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꾸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지 못하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큰 것입니다(요일 5:9).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가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약속은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3. 연약할 때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또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하란에서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시간 낭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또 한 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윗도 어느 순간에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부르시어 성군 다윗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을 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 열 번, 혹은 스무 번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자를 반드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양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부르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항거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마을의 다락방장으로, 전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보내소서” 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달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목사님을 주일학교 교장선생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저를 서울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도 알기 쉽게 이야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의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 예배드리며 찬송하는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친구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꿈은 커서 치과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선생님이 아프시지 않도록 하나님

께 기도드릴게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유년부 박지원 올림.

목 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설교를 들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가 즐겁고 재미있어요. 저도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총명한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집에선 저녁마다 엄마께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러고 나면 제 마음이 포근해져요. 어떻게 하면 저도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우리 아빠가 교회에 잘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유년부 이정진 올림.

서 울교회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께서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시상도 하고 여름·겨울 성경학교 등 많은 것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힘드시고 바쁘시죠? 스승의 날도 지나고 꽃도 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쓴 정성의 편지로 대신할게요. 우리들은 기도할 때 눈 뜨고 만 것도 많이 하지만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나쁜 악마가 괴롭히지 않게 예수님 말씀을 똑똑하게 들을게요.

유년부 김사빈 올림.

다락방 찬양대회를 마치고



뜻밖에 사랑상을 받았으나

한명옥 집사(10교구)

우리의 소망 되시고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매우 세미하게 느껴지는 아름다운 축제였다.

다락방 찬양대회를 25여일 앞두고 우리 10교구 식구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이 일을 준비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시상이 있는 대회가 이기에 자칫하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입술로만 노래를 부르는 단순한 하나의 행사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와는 상관 없이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은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여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여다" (시98:4)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따라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했다.

"오 주여 온전치 못한 저희들에게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경배자로서 진실한 경배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작은 지체들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연습할 때 아가페(Agape)의 사랑을 가득 체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찬송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도 모두가 감

지하게 하시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구했었다.

10교구의 제적 중 85%가 (지체가 불편하신 이순일 할아버지도 참석하셨고 가정마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한 가족이 모두 나오고...) 모두 모두 하나님께 이끌려 힘껏 협력해 주셨다. 우리 식구의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마웠는지 모른다.

뜻밖에 우리 교구가 사랑상을 받게 되었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성모아 열면 경연을 펼쳐 주신 교회 모든 지체들과 준비위원들의 숨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향해 주셨음을 확신하며 감사, 감사를 드린다.

이 순간도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제각기 서 있는 곳에서 시와 찬미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찬송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여 가정과 이웃과 몸 되신 교회에 십자가의 사랑의 실천을 좀더 깊고 넉넉히 행할 수 있는 참된 동기 부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 43:21).

잊지 못할 두 명의 스승

이영옥 집사(6교구)

9년 전 어느 날 당시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들(노창훈)과 아침 식탁에서 어떤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다. 옥신각신하던 끝에 아들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은 채 급하게 문을 닫고 학교로 가 버렸다. 어미인 내가 보기엔 금새 후회할 일인데도...

그런 아들 모습이 꽤 씩씩하고 분해서 이른 아침인 것도, 옆집에 누를 끼칠 걱정도 있던 채 엉엉 소리를 내며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아이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가슴이 점점 더 찢어지는듯 아파와 두



아픈 주님의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이었다.

"아버지여! 제가 주님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줄 모랐았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나는 "앞으로 혹 저 아이가 내 말에 순종치 않을 때가 있더라도 나는 결코 주님께..." 라고 결심했다. 그리고 "아들아! 너는 귀한 것을 가르쳐 준 나의 스승이로구나!" 라고 되뇌이며 비로소 식탁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교사로 지정해 주셨던 딸 아이(노애리)는 어미에게 사사할 것을 다했다고 주님께서 인정하신 그 날에 나의 스승으로서의 퇴임식(2달 전 결혼)을 하지 않았던가?

잊고 있다가도 해마다 스승의 주일이 되면 마음 속으로 편지를 쓰곤 한다. "너희들은 진정한 나의 스승이었어..." 하며.

손으로 가슴을 부들켜 안고 우는데 갑자기 그 아픔이 아물 때문에 아픈 내 가슴이 아니라 나 때문에

목회자세미나·성경대학 종강

제 1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29일(월)에 종강한다.

3월 29일(월)에 시작하여 10주간 동안 매주 월요일에 계속돼 온 이번 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는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천년을 바라보면서' 라는 주제 아래 진행됐다.

제 1교시에는 이종운 목사를 강사로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다. 제 2교시에는 열 명의 외부 강사를 초청, 한국의 신학, 정치, 기독교 학교, 전통 문화, 지역 이기주의, 경제, 언론의 현주소와 교회의 역할에 대해 조명해 보는 한편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의 역할, 사회 가치관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 개교회주의와 성장주의에 대한 반성과 대책 등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서울성경대학 제 7학기 강좌도 이번 주와 다음 주 각 과목별로 종강한다. 이번 학기엔 새 예배당 시대를 준비하는 다락방장반

(리더양성반)을 비롯하여 여호수아반, 신명기 반과 음악교실 강좌가 진행됐다.

서울성경대학의 종강예배는 6월 11일(주일) 찬양예배 시 드리게 된다.

■ 동정 ■

* 김선일 집사(11교구, 임마누엘찬양대 지휘)는 26일(금), 27일(토) 구리시 오페라단이 주최하는 모짜르트 오페라 "여자는 다 그레"에 주연으로 출연했다.

* 구민영 선생(8교구, 할렐루야찬양대원)은 27일(토) 한양대 개교 40주년 기념 오페라 "라보엠"에 주연으로 출연했다.

* 조은주 집사(4교구 할렐루야찬양대 오르가니스트)와 강민희 집사(8교구 시온찬양대 지휘)는 30일(화) 경동교회당에서 오르간과 피아노 협연을 한다.

* 전광영·김인숙 집사(4교구) 가정은 찬양곡집 100권을 임마누엘찬양대에 기증했다.

* 이번 주 식사는 이남성·최영란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사라전도회는 29일(월)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 한가족 한마음 축제를 후원에 주신 분 ■
(5월 24일 현재)

- ▲이종운(도자기 1점) ▲모세선교회(20만원)
- ▲제1권사회(20만원) ▲임광식(10만원) ▲박철훈(가스오븐렌지 1대, 100만원) ▲김광신(10만원)
- ▲오정수(노트북컴퓨터 1대) ▲노문환(10만원) ▲이영기(30만원) ▲하영수(10만원)
- ▲노송성(10만원) ▲서문석(10만원) ▲홍성주(50만원) ▲이복규(10만원) ▲조정식(50만원)
- ▲오형철(50만원) ▲김세재(손목시계 50개) ▲오광환(10만원) ▲신용식(300만원) ▲최재규(20만원)
- ▲신순우(목기류 80점) ▲이남성(20만원) ▲허상한(저주파치로기 1대 외 의료기 3점) ▲정동호(필름 50통) ▲장덕(홀라후프 20개) ▲김정희(10만원) ▲정하자(100만원)

<바로 잡습니다.> 지난 호 순례자 안수 집사 후보 명단표에서 김재술 집사 가족 항목의 '김현정 집사'는 '조춘택 집사'로 바로 잡습니다.

2000 흥해작전 주력부대

요일	화	수	목	금	토	주일	월
날짜	6	7	8	9	10	11	12
교 구	총동원	1·2교구	3·4교구	5·6교구	7·8교구	9·10교구	11·12교구
찬 양 대	가브리엘	할렐루야	임마누엘	베들레헴	호산나	시온	가브리엘
교회학교	총동원	유아·유치부	유년·초등부	중·고등부	장년·소망부	대학부	청년·사랑·새가정
전 도 회	총동원	도르카·빌립	루디아·안드레	외외·베드로	마리아·바울	에스터·엘리아	하나·모세
참 모 부	기획참모부	행정참모부	예배참모부	찬양참모부	동원참모부	홍보참모부	봉사참모부
요일	화	수	목	금	토	주일	월
날짜	13	14	15	16	17	18	19
교 구	1·2교구	3·4교구	5·6교구	7·8교구	9·10교구	11·12교구	1·2교구
찬 양 대	할렐루야	임마누엘	베들레헴	호산나	시온	가브리엘	은빛
교회학교	유아·유치부	유년·초등부	중·고등부	장년·소망부	대학부	청년·사랑·새가정	유아·유치부
전 도 회	사라·아브라함	도르카·빌립	루디아·안드레	외외·베드로	마리아·바울	에스터·엘리아	하나·모세
참 모 부	기획참모부	행정참모부	예배참모부	찬양참모부	동원참모부	홍보참모부	봉사참모부
요일	화	수	목	금	토	주일	월
날짜	20	21	22	23	24	25	
교 구	3·4교구	5·6교구	7·8교구	9·10교구	11·12교구	총동원	
찬 양 대	할렐루야	임마누엘	베들레헴	호산나	시온	당회원	
교회학교	유년·초등부	중·고등부	장년·소망부	대학부	청년·사랑·새가정	찬양예배 시	
전 도 회	사라·아브라함	도르카·빌립	루디아·안드레	외외·베드로	마리아·바울	승전감사예배	
참 모 부	기획참모부	행정참모부	예배참모부	찬양참모부	동원참모부	(총동원)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새가족을 환영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5월에 등록한 새가족은 인도자와 함께 예배 전 환영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초청된 새가족 ***

조중원 한애라 최선한 허덕금 이신범 박선영 최상설 박희자 남미경 김보슬 이예영 김순자 황보인 박동민 김인규 이슬기 조성진 박도봉 성순자 김은미 김시은 변순임 안태영 오명란 이지아 이진희 이승혜 신현이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2. 흥해작전과 한마음 한가족 축제를 위해
3. 복된땅에도 신앙의 자유가 이루어지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
새 벽 기도회	매일 새벽5시30분

† 교외약도

